



삼성·애플, 美 특허 본안 소송, 그 후

미국의 편파판정, 삼성 LTE로 반격

삼성·애플소송 향후 예상 시나리오

소송 장기화

미국 내 소송 대법원까지 장기전
미국 외 전 세계 특허소송 동시다발적 진행

특허료 협상

애플 디자인 특허 인정시 거액배상
크로스 라이센싱 등 로열티 협상 후 소송 취하

새로운 특허 소송 제기

신제품에 대해 LTE기술 기반의 통신 특허로 새로운 소송 제기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 대폭 수정

IT 모르는 배심원단, 삼성 특허 무시한 채 애플 유리 ‘편파 평결’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번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을 살펴보면 ‘미국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미국기업에, 패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 가운데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

는 사람은 배심원단장 벨빈 호건 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명의 배심원은 사실상 IT 문외한이다. 이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성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결에 대해 “미국 특허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둑근 모서리와 격자형 아이콘 배열 등 디자인 특허를 인정한 부분을 놓고 미국 네티즌도 비판에 나섰다. 한 네티즌은 “버거팅이 맥도날드 고소하겠네. 둑근 모양의 햄버거를 판다는 이유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처음 차를 발명한 사람이 바퀴 4개, 핸들로 텐을 하는 등의 디자인 특허를 내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라며 비꼬았다.

이번 미국 재판은 전 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 같이 디자인(애플) 대 통신(삼성전자)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유럽이나 한국에서 나온 판결과 정반대였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네 모서리를 둑글게 처리한 것’, ‘스마트폰 앞면 아래쪽에 홈버튼을 배치하고, 옆면에 볼륨키 등 기능키를 배치한 것’,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서 아이콘들을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해둔 것’ 등이다. 배심원들은 “애플도 소니와 LG전자 프라다폰 등의 디자인을 참고해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모두 애플 손을 들어줬다.

또 애플이 주장한 바운스 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평거 투줌(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 안의 문서가 확대되는 기술 등 3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애플의 특허라고 배심원들은 평결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대부분 인정

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주장한 통신 표준특허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는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 구분 기술, 중요도별 데이터 송신 전력 감소 기술 등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5건이다. 특히 한국법원의 판단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때 권리자가 조건을 차별적으로 내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 법원은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삼성이 애플의 기술사용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미국 배심원들은 프랜드 선언을 한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삼성 특허를 인정한 경우에도 부품 업체가 사용 허락을 받고 생산한 부품을 이용했기 때문에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특허 소진’ 판단을 내렸다.

삼성, 애플보다 우위

LTE 특허 앞세워 대반격 나선다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삼성의 특허와 기술력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24일(현지시각) 삼성 전자와 애플간 세기의 특허소송에 대한 미국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심 ‘일진일퇴(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과 삼성전자와의 통신특허 주장을 모두 일부 인용하는 것)’의 평결을 예상했지만,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서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완패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혁신’을 바탕으로 통신특허를 주무기로 장착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가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LTE분야에서 표준특허 외에도 상용특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시될 애플의 신제품이 LTE(롱텀에볼루션) 기술적용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표준 특허’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어도 필수 기본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업체들에 적정 대가를 받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면서 삼성의 표준 특허를 사용했다.

하지만 ‘상용 특허’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 공개할 의무가 없다. LTE폰처럼 고성능 제품 일수록 ‘상용특허’ 기술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이 애플의 신제품을 분석한 뒤, 특허침해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번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LTE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의 통신망과 네트워크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특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애플이 먼저 크로스 라이센싱 등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승기가 삼성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는 각각 사내미디어 ‘삼성전자 Live’와 ‘미디어 삼성’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는 ‘혁신’을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의 장기전에 대해서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사의 최종판결이 남았고, 이후에도 여러 재판과정이 남아 있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대한 판결도 아직 한 달여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질 경우 소송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미국 현지에서의 재판진행이 1단계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전 세계 9개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애플’ 세기의 인물열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본안소송 1심에서는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났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양 사의 특허전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삼성과 애플의 최고경영자에서부터 판사, 변호사, 중인, 배심원까지 다양하다. 흡사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소설을 보는 듯하다. 이 인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특허전쟁 기사가 나올 때마다 되짚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등장인물을 끄고 있어야 기사를 읽는 내내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도 물론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잡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를 본 후 “왜 내 제품을 모방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특히 소송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건희 회장은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라며 맞불을 놨다.

현재 두 회사 특허전의 주인공은 단연 최지성 부회장과 팀 쿠 CEO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하고, 스티브 잡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삼성 미래전략실장으로 그룹 2인자에 올랐지만, 애플과의 특허전이 시작될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지금껏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팀 쿠 CEO도 지난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특허 소송을 이끌고 있다. 팀 쿠은 잡스와 달리 특허 소송을 원치 않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양 사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아직도 특허전쟁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무산됐다.

최근 미국 본안 소송에서 증거물로 이메일이 공개되며 주목받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책임지는 신종균 IM부문 사장이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2010년 2월10일 신종균 당시 무선사업부장(사장)과 내부 직원들의 간담회 내용이 적

혀 있다.

이메일을 살펴보면 아이폰 성공으로 인한 후폭풍에 큰 위기의식을 느낀 신종균 사장이 내부 직원을 독려하는 부분이 낱낱히 드러나 있다. 신 사장은 아이폰과 비교하며 UX(User eXperience : 사용자 경험)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노키아만 주목하느라 폴더, 바, 슬라이드 형태 등의 휴대폰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하니 UX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는 디자인의 위기다”라고 질책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삼성과 애플의 변호인단 대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탄한 논리와 뛰어난 화술로 10명의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 변호인의 대결은 이번 소송의 최대 승부처다.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은 찰리 베호벤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꼽힌다. 1985년 아이오와 대학교, 1988년 아이오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IBM, 구글, 월컴, 야후, 모토로라 등 글로벌 IT 기업 변호를 담당하는 등 특허 부문에서 잔뼈가 굵다. 지난 2010년에는 ‘아메리칸 로우 어’가 수여하는 올해의 지적재산권 소송 부문상을 수상하고, ‘데일리 저널’이 선정한 캘리포니아 톱 100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애플 측 변호인인 헤럴드 매켈리니는 지난 2006년 삼성SDI와 파이오니어의 특허소송에서 파이오니어 측 변호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 삼성 저격수다.

매켈리니 변호사는 지난 1970년 산타클라라 대학교, 1975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자업체, 생명과학기술 관련 소송에서 활동해왔으며 특히, 저작권, 무역 분쟁 등에 강하다.

화려한 이력에 걸맞게 두 사람은 미국 본안 소송에서

팽팽한 논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버흐벤 변호사는 변론에서 “직사각형 디자인은 애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기업들이 사용해 왔다”며 2006년 출시된 LG 전자의 프라다폰을 예로 들었다. 애플 특허가 원조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아이폰이 산업과 경쟁을 고무한 것은 인정한다”고 발언하는 등 직설적 화법과 완곡한 화법을 넘나드는 변론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다.

매켈리니 변호사는 직설적인 화법 위주로 변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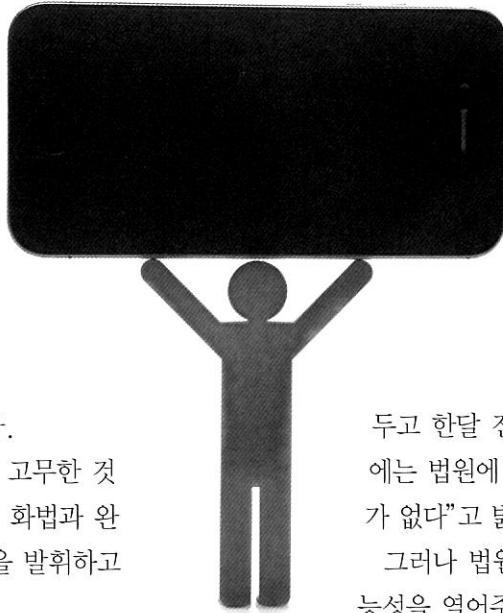
그는 “애플은 삼성전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며 플립폰, 쿼티 자판폰, 슬라이드폰 등을 배심원단 앞에 꺼내 놓았다. 이어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의 삼성전자 휴대폰을 보라. 삼성전자는 혁신보다는 손쉬운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애플의 전 디자이너인 ‘신 니시보리’도 미국 특허 본안소송이 시작된 후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삼성전자측이 주장하는 “아이폰의 디자인은 소니의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4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출시된 아이폰이 먼저 나온 소니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했다며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운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니시보리는 당시 아이폰을 디자인한 애플의 산업 디



자이너다. 삼성전자는 그를 소니 디자인 차용 여부를 증언해줄 인물이라고 판단, 핵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보리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여 왔다. 삼성전자가 증인 신청을 하자 본안소송을 앞

두고 한달 전 돌연 퇴사했고, 지난 7월 29일에는 법원에 서한을 보내 “재판에 출석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니시보리를 증언대에 세울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그가 2심 이후 법정에 서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 니시보리는 지난 2002년 6월 프리랜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 애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하우징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선을 전격 스카우트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2012. 9 |



송영록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